# 與 "도발 방지책 없나" 野 "선거 악용 안된다"

## ■'북풍' 몰아친 지방선거판 시·도지사 후보 반응

'북풍(北風)'이 12일 남은 지방선거를 강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0일에 맞춰 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발표하면서 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자칫 '북풍'으로 지방선거 이슈와 풀뿌리 기초자치 선거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경 방침과 북한 다시 보기를 주장했고, 야당 후보들은 정부의 안보 무능과 북풍 몰이를 경계했다.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는 "이제는 정확히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도 좋지 못하다"고 북한 다시 보기를 강조했다.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 없이 '북풍'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는 "정부 발표는 교신기록 등의 기초자료가 빠져있는 등 요건을 상실한 낙제 보고서"라며 "특히 선거운동 첫날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정권 심판 여론을 빗겨 나가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천안함 조사결과는 정황증거에 불과한데다 선거운동 첫날 발표한 것도 북풍 몰기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안보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안보 문제와 남북관계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사고를 지방선거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민주노동당 박웅두 전남지사 후보는 "천안함 사고는 한·미 합동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 앞에서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와 정두언 국회의원, 구청장 후보 등이 지방선거 출정식을 겸한 첫 거리유세를 펼쳤다.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5개 구청장 후보·지방의원 후보·선거운동원 등이 출정식을 하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지방의원 후보들은 20일 오전 전남대 정문 앞에서 광주지역 후보 합동 출정식을 하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졌다.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20일 옛 전남도청 앞에 마련된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 이병완 서구의원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출정식을 가졌다.

무소속 전주언 서구청장 등 서구지역 무소속 연대 후보들은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 기념공원에서 무소속 후보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

/나명주·최현배기자 mjna@kwangju.co.kr

## ■선거운동 첫날 이모저모

# "교차로 선점하라" 눈치작전 치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을 맞아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거리마다 각 후보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각 후보의 유세 차량은 주요 교차로와 도로, 골목 등 곳곳을 누비며 후보 홍보에 열을 올렸다. 후보와 각 정당 관계자들도 이날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해 선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지역 주요 교차로를 선점하기 위한 각 후보 선거캠프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졌다. 특히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를 비롯 북구청·오치·말바우시장·화정 사거리, 백운 광장·산수 오거리,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등 차량 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는 이른 오전부터 '자리 선점'을 위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들 교차로에서는 10여 대의 유세차량과 100여 명의 운동원이 형형색색의 단체복을 입고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 등 열띤 홍보전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을 선점하기 위해 점심시간 두 시간 전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 '밀집모자 노무현 대통령' 눈길

○…20일 오후 고 노무현 대통령 캐릭터가 광주 서구 양동시장 국밥집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퇴임 후 봉하마을 생활의 상징처럼 여겨진 '밀짚모자 노무현 대통령'의 캐릭터 인형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을 지낸 국민참여당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후보가 서민정치의 하나로 깜짝 등장시킨 것. 이 국밥집은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방문 당시 실제 찾았던 국밥집으로, 시장상인들의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서 후보는 "그분의 정신과 가치 완성이라는 사명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거리유세 대신 사회봉사활동

○…일부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리유세 대신 사회봉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농성초등학교 입구 횡단 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1시간 여 동안 교통봉사활동을 펼쳤다.

안 후보는 "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35년 전 광주에 첫 부임했던 농성초등학교를 찾았다"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매일 사회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호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도 이날 오후 선거운동 출정식을 한 뒤 곧바로 농촌지역인 대촌동을 방문해 일손돕기를 벌였다. 최 후보는 농번기가 선거운동기간과 겹치면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농사일을 돕는 봉사활동을 선택했다.

### 무소속 후보들 區 경계서 선거운동

○…무소속 구청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구 경계지역에서 만나 교통봉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무소속 전주언 서구청장 후보와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는 이날 오전 남구와 서구의 경계지역(주월동과 풍암동)인 원광대 한방병원 앞에서 건널목 교통안내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무소속 연대 선거운동원 등 100여 명과 함께 출퇴근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소속 지지를 호소하며 교통을 안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지방선거 핫코너

### 전남교육청 출신 3명 신태학 '단일화'

6·2지방선거에 나선 전남도교육청 출신 3인 후보 중 신태학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신태학 후보는 20일 "전날 실시된 도민(3000명)과 교직원(475명) 대상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25.04%의 지지율을 얻어 서기남(18.96%), 윤기선(18.93%) 후보를 제치고 단일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도민과 교직원들이 간절히 희망했던 풍부한 교육 경력, 전문적 식견 등을 가진 후보로 단일화가 된 만큼 반드시 교육감에 당선돼 그 소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전완준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완준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20일 오후 화순 광덕지구 사거리 국민은행 4거리에서 지지자들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실 개소식과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전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효자 군수를 뽑아 중단 없는 화순발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정치인을 뽑아 반목과 갈등의 과거 정치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

### 강진원 지방선거 출정식

민주당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는 20일 오전 강진터미널 앞에서 유선호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강진군 도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6·2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지방선거 필승을 다졌다.

강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이제 정치인 출신 군수는 큰 정치 마당으로 가고, 군정은 행정 전문가가 맡아 군민을 추스르고 바닥을 헤매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박진표·정운수기자 cki@kwangju.co.kr